

2 뉴스

# 학군단 지원을 감소 대학, 장학지원 검토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우리학교 학군단(ROTC) 지원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학군단 지원 인원은 ▲2018년 56명 ▲2019년 55명 ▲2020년 28명 ▲2021년 39명 ▲2022년 21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학군단은 초급 장교를 충원하기 위해 미국 학생군사훈련단 제도를 도입해 전국 종합대학 내에 설치한 학생군사훈련단을 의미한다. 학군사관후보생(후보생)은 2년간 군사교육을 받은 뒤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이들은 초급 장교 7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학군단 김준호 단장은 “병사들을 교육하는 초급 장교는 군의 근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지원자 수가 감소하면서 그 여파로 2018년 73명이었던 후보생 수가 2022년 36명까지 줄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우리학교에만 국한돼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에 따르면, 학군단 전체 지원자 수는 ▲2018년 12,600명 ▲2019년 11,500여 명 ▲2020년 7,400여 명 ▲2021년 9,400여 명 ▲2022년 7,600여 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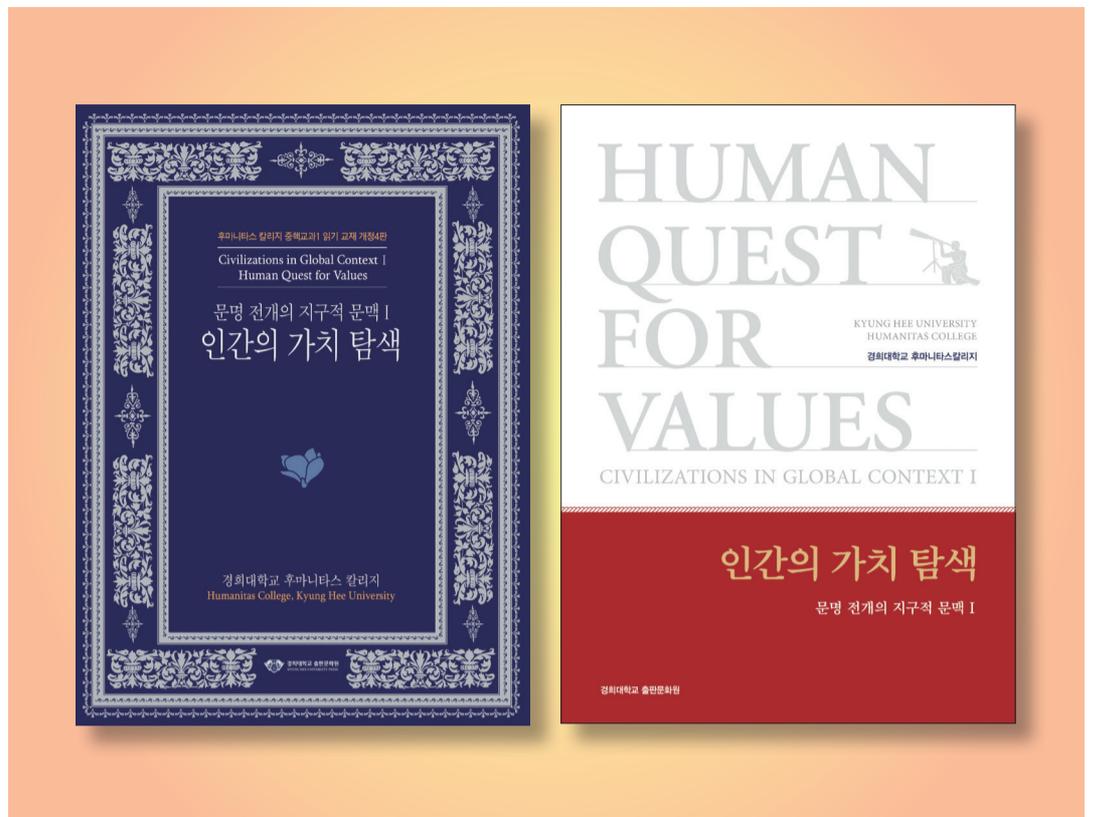
학군단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든 이유로 학생들은 ▲병사 월급 인상 ▲또래보다 1년 이상 긴 복무기간 등을 꼽았다. 허성경(영어영문학 2021) 씨는 “줄어든 병사 복무기

간과는 다르게 장교 복무 기간은 오랜 기간 28개월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신영(한국어학 2021) 씨 역시 “병장과 장교 간 월급에 큰 차이가 없고 현재는 장교의 권한도 많이 사라진 느낌이라 그저 군생활을 오래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진욱(미디어학 2020) 씨는 “졸업하고 군대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늦다”며 “다른 친구들은 1학년, 2학년 끝내고 군대 다녀와서 취업을 준비하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방부는 후보생 및 장교에 대한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후보생 기간 중 1회 지급되는 ‘단기복무 장려금’을 2021년 600만 원에서 2022년 9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단기장교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학교도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권오병 서울캠 학무부총장은 “학군단은 ‘학문과 평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우리학교의 이념과도 부합하는 조직”이라며 “후보생이 되는 첫학기에 전액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예산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 형편이 곤란한 학생이나 성적 최우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성취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학년도 1학기 학군단 모집은 오는 4월 5일 마감된다.



개정 전 『인간의 가치 탐색』 표지(좌) 개정 후 『인간의 가치 탐색』 표지(우)

(사진=커뮤니케이션센터 제공)

## 『인간의 가치 탐색』 개정 출간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필수교양 ‘인간의 가치 탐색’ 교재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정됐다.

지난 2월 24일 출판문화원은 『인간의 가치 탐색』 개정 5판을 출간했다. 개정판은 총 6개 장이며 ▲1장 호모 에로티쿠스 ▲2장 소유와 행복의 역설 ▲3장 자유를 향한 몸짓 ▲4장 불완전 환불균 ▲5장 환

대의 식탁 ▲6장 호모 프로 스펙투스를 차례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도서에서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낮은 글이 삭제되거나 대체됐다. ‘가치’를 다루는 과목인 ‘인간의 가치 탐색’에 맞춰 기존 6개 장 중 비교적 ‘가치’와 거리가 먼 주제를 담고 있는 ▲1장 판단과 선택 ▲7장 삶의 의미가 삭제됐다. 대신 기존 도서에서 깊이 다루지 못했던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고, 시각의 다양성을 위해 각 장에 수록된 글의 수를 늘렸다.

표지와 삽화도 달라졌다. 표지는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 피가 둘러 있는 디자인으로 교체됐고, 글 중간에 들어가 있던 삽화는 전면 삭제됐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사용해온 표지와 삽화는

교내 판매를 조건으로 무료로 사용해왔다. 교외 판매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판은 교내·외 판매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에 출판문화원은 비용 절감을 위해 표지를 직접 제작하고, 삽화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소장 고봉준(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새 교재의 6장에는 최근 인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 시의성 있는 글들을 집중 배치했다”며 “고전 중심의 성격에서 벗어나고자 했다”고 전했다. 디자인 변화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지불을 하게 되면)비용이 많이 나와 책값이 올라간다”며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을 빼게 됐다”고 설명했다.

##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제72기 신입기자 공개모집

**2023년 3월 17일(금)**  
**서류제출 마감**

**지원자격**

- 경희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복학생 (학년 무관)
-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
-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모집전형**

- 신입 취재(0명) (3학기 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
- 경력직(0명) (대학주보를 포함한 학보사에서 정기자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성 언론사에서 인턴 직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자)

**선발일정**

- 1차 서류 제출 마감 : 3월 17일 (금)까지
- 2차 면접평가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지원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 배너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대학주보: media.khu.ac.kr/khunews)

**활동혜택**

- 기사 작성 시 원고료 지급
- 장학금 수혜 기회 제공
- 현직자 특강
- 해외취재 기회 제공